

문화전당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

■ 광주시의회 5분 발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0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전략적 지역인재 육성사업 부채와 문화의 전당 개관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5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지만 골목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의 전당 개관에 맞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문화전당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동구 지산유원지와 중심사 지구에 연계한 삼각벨트 관광자원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산유원지는 문화전당과 가까우면서도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산유원지-중심사 지구 자원화 서둘러야

평생교육원 설립·인재육성 사업 비효율적

광주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타워’를 세우거나 특색 있는 ‘남도향토 음식타운’을 조성한다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심사 지구에도 ‘조각공원’과 ‘야외 공연장’을 조성해 등산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설 공연을 한다던 불거리, 즐길 거리의 관광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기관, 대학 등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다”며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예산부족과 부서별 중복 추진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광주시 인재육성사업 예산이 지난 2009년 79억8000만원, 2010년 63억40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61억7000만원으로 줄었다”며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지난 2009년 40억8000만원에서 2010년 25억원, 지난해 22억7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5개 부서가 각기 인재육성사

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 사업별 중복 가능성이 크고 정보교류의 단절 등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현안에 적합한 전략적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시급하다”며 “CGI센터, CT연구원,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위한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보현(무소속·서구 2) 의원과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각각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사업’ 우려와 솔렌시스 특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이 환경공단 측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이뤄져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투명성 확보에 난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T, 혁신도시 신사옥 착공 지난 30일 나주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신사옥 착공식에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윤봉길 광주시의회 의장,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장, 임성훈 나주시장 등이 착공 축포 발사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한·미합작법인 부실 추진

감사원 감사 결과... 650만달러 날릴 위기

광주시가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 형상 이미지)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문화콘텐츠 한·미 합작법인 설립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시가 출연한 일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본보 2011년 9월28일자 1면)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와 산하 출자법인인 한·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650만 달러의 자금을 잘못 송금한데다 미국 원천기술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가 출자한 650만 달러를 송두리째 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 출자법인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과 미국 K2EON(K2)

(GAMCO·Gwangju Advanced Media Corporation)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650만 달러 송금방식과 K2측의 원천기술 검증문제 등을 적발해, GCIC 대표에 대한 사법조치 요구와 함께 광주시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GCIC는 미국 K2사와 협상과정에서 완제품이 납품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가능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65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2측의 3D컨버팅(변환) 원천기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송금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GCIC는 지난해 2월 한·미 합작법인 검토를 설립한 뒤 3D변환 첨단 기술력 도입과 장비, 마케팅을 위해 총 111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하고, 이 가운데 650만 달러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50만 달러는 지난해 8월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 파치노’를 초청하는 한국스튜디오 개설행사 비용으로 송금했으나 이 행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650만 달러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GCIC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사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K2와 최종 협상이 진행중이고 K2의 기술력이 검증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LA테스트를 거쳐 7월경 3D 변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금받기까지 계약 이행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K2와 GCI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적자 해소 방안 핵심 박지사 대권출마 여부도

도의회 도정질문 쟁점

1일과 3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10월 12~14일) 코리아그랑프리 적자 해소 방안과 인사 문제, 박준영 지사의 대권 출마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욱기(이하 민주통합당·광양2)·박재(목포4)·이용재(광양1)·곽영제(이하 교육위)·기도서(교육위)·이정민(통합진보당)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도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샀던 최근의 인사 문제와 F1 대회 적자 해소 방안 등을 질문하고, 김 의원도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을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 박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파견교사 운영, 초빙교사제도 보완, 외국인 학교 설립 문제 등 교육 현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에 등지를 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도 제공)

목포에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개소

전남지역 장애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게 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석규) 전남지사가 목포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사가 통합돼 있었지만 거리 가 멀어 불편을 겪었던 전남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27일 목포시 호남동에서 전남지사가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정중득 목포시장, 배종복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고용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사는 광주시와 인접한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을 제외한 전라 전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 구인·구직상담,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시험고용,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용자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여성친화도시사업 박차

생활밀착 도서관 확충 등 56건 모범 육성

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광주시정 주요 과제 중 여성친화와 연계할 수 있는 5대 분야 149개 대상과제

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여성가족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중요도와 시민 파급효과 큰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광주 새 야구장 건립’ 등 대상 과제 56건을 중점 관리해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민·관·전문가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발족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과 과제 모니터링, 평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정책해설터’가 공공시설물, 교통 등의 불편사항을 집중 조사해 각종 생활밀착형 여성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이점 특허등록 : 3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 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문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배우면서 투자가능 / 회비 330만원
- 유치권등 특수건만 투자
- 투자자 모심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범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음식점을 급매대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가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가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품질을 위해서 수수료나 몇푼 쟁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무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무나 (매매)
지역: 북구 삼각동 (사무나 현 성업동) 면적: 대지 9000평, 건물: 2500평
지역: 칠천지구 월계동 (우인텔 공매) 면적: 대지: 338평, 건물: 440평 객실: 22실
지역: 광천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사용가능) 면적: 대지: 91000평, 건물: 2803평
지역: 분산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수완지구 롯데미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월주택 부지 적합
지역: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정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